



##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의 차질없는 정착을 다짐하며...

최근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 명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일 약물을 중복 복용하거나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복용약과 신규 처방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에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그 약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역시 4만여개나 되는 약제들의 상호작용 및 그 영향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8년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DUR이란 의사와 약사가 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DUR 프로그램을 통해 병용(並用)해서는 안되는 약품과 약제처방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 팝업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1단계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내의 의약품들 간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2단계는 환자별 처방·조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양시(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와 제주도(2009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들 간에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부터는 DUR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심평원은 DUR 시스템이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DUR 사업은 21세기 정보기술을 국민 의약품 안전 복용에 활용한 선진 제도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DUR 사업에 국민과 의약계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정착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